

이강인 “진심으로 사과” - 손흥민 “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”

아시안컵 대회 기간 손흥민 선수와의 충돌로 논란을 일으킨 축구대표팀 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.

지난 21일 'MBC'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"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"며 같이 전했다.

이 선수는 "흥민이 형과의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"며 "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에게 감사드린다"고 밝혔다.

이 선수는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사건과 관련해 "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. 지금 돌이켜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"며 "깊이 뉘우치고 있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흥민이 형이 주장이자 형으로서,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제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들지 않고 제

의견만 피력했다"며 "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"고 밝혔다.

그는 또 "대표팀의 다른 선배님과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 사과했다"면서 "(팬들이) 제게 베풀어주시는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걸 알고 있다.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다"고 사과했다.

이강인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사과한 건 충돌 사태 이후 14일 만이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일주일 만이다.

이강인은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탁구를 치



▲ 손흥민이 SNS에 공개한 이강인과 찍은 사진. 사진=instagram

다 이를 제지하던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.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. 논란이 커지면서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업체가 계약 연장을 않거나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.

손흥민 선수도 SNS에 글을 올려 "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"며 이강인 선수와 만난 사진을 공개했다.

그는 "강인이가 그 일 이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, 한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.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"고 강조했다.

한 경기에 397점 ... NBA 올스타전 역대급 득점 쇼



▲ 2023-2024시즌 NBA 올스타전에서 MVP에 선정된 데이비안 필러드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. 사진=연합뉴스

어졌다. 정규리그만큼 치열하게 수비하지 않는 이벤트 매치 특성이 겹치며 한 팀이 200득점을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.

19일 '국민인보'에 따르면 전날 인디애나폴리스 케인브릿지 필드 하우스에서 열린 2023-2024시즌 미국프로농구(NBA) 올스타전에서 동부팀이 서부팀을 211대 186으로 꺾었다. 최우수선수(MVP)는 데이비안 필러드(밀워키 벅스)에게 돌아갔다.

'역대급' 득점 쇼였다. 동부팀이 기록한 211점은 올스타전 역사상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이었다. 서부팀의 186점 또한 전 팀이 올린 최다 득점에 해당했다. 당연히 양 팀의 합계 득점

또한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. 도합 397점으로 2017년의 374점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.

개인 다득점자도 여럿 나왔다. 필러드가 39득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지만 가장 많은 점수를 낸 건 칼 앤서니 타운스(미네소타 팀버울브스)였다. 5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는 NBA 역사상 4번째로 올스타전에서 한 경기 50점을 올린 선수가 됐다.

이처럼 올스타전에서 비현실적인 점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. 양 팀의 합산 득점이 300점대에 형성된 역대 올스타전은 이번 포함 총 10번 있었다. 이중 8번은 2010년대 이후에 열렸다.

NBA 차원의 다득점 추세는 새로운 현

상이 아니다. 1990-2000년대 100점 아래로 떨어졌던 평균 득점은 스테픈 커리(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)가 주도한 '3점 혁명' 등에 힘입어 2010년대 급격히 증가했다. 이벤트 경기인 올스타전의 특성이 이 같은 추세를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. 정규리그 대비 수비가 헐겁다 보니 자연히 다득점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. 수비가 느슨하다 보니 이날 MVP로 선정된 필러드는 두 번이나 중앙선을 밟은 상태에서 슈트를 성공시키기는 등 3점 슈트 11개를 성공시키는 등 총 39득점을 올렸다.

다득점이 경기의 재미를 오히려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. CBS는 "NBA는 더 박진감 있는 경쟁을 원했다"며 "정작 얻은 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득점 뿐"이라고 총평했다.



Kim's Handyman 리모델링전문



페인트/ 부엌
화장실/ 마루
타일/ 캐비닛
윈도우/ 지붕수리
전기/ 플러밍
각종 리모델링

작은일도 합니다!

Kim's Handyman
562.833.0766

Home Remodeling